

“사회변동과 언어변화 : 1960년대 다시 보기”에 대한 토론문

홍미주

경북대 교양교육센터

mibong78@hanmail.net

이 연구는 1960년대에 당시 국어 연구자들이 지목한 사회변동과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대상으로,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현재 그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언어 현상이 사회변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 논의입니다. 언어 변화를 사회변동과 함께 파악하며, 언어 개신이 언어변화로 이어졌는지 살피고자 하는 논의는 국어의 언어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연구 대상 시기

서론에서 1960년대를 주목한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언어변화의 분기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1960년대 청년층이 현재 중장년층이 되었으므로 그간의 언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1960년대가 가지고 있는 연구적 의의를 당시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 시기 중 1960년대에 초점을 두고 사회변동과 1960년대 일어난 언어 개신을 연관지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어두경음화 관련 논의

이호영(2009), 한명숙(2011) 등에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는 특정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의 연령 단계 변이(Age-graded variation) 현상으로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960년대의 어두 경음화의 확산 예측과 달리 21세기 한국어에서 어두 경음화는 어휘개별적으로, 연령 단계별 변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과거에서부터 최근의 연구에까지 젊은 세대에서 어두경음화 실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곧 어두경음화 현상이 연령 단계 변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중장년층이 되면 어두경음화가 감소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경음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어두경음화 실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경음화형이 정도성을 표현하고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며, 의미분화에 관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두경음화형의 담화상 기능이 중장년층이 된다고 사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경음화가 연령단계별 변이라고 결론내려면 실제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부간 호칭어 '아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2000년대 이후 20대 부부부터 감소하는데 한영옥(2005)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기 때문이다.”

호칭어 '아빠'의 축소 원인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영옥(2005)에서는 20대의 대부분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호칭어 'OO아빠'의 사용이 축소되었다고 보았고, 부부간 호칭어 'OO아빠'와 '아빠'는 별개의 호칭어입니다(구현정 2016, 한영옥 2005).

한영옥(2005: 296)에서는 20대의 대부분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OO아빠'보다는 '이름+씨', '오빠' 등의 호칭을 선호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에서도 '아빠'는 2~1.4% 밖에 되지 않고, 20대에서는 아무도 '아빠'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대 부부부터 '아빠'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해석하기보다 전 연령대에 걸쳐 '아빠'의 사용이 미미하고 20대에서는 그 사용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한영옥(2005)의 논의를 이용해 호칭어 '아빠'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하기보다, '아빠'와 'OO아빠'를 별개의 호칭어로 처리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구현정(2016: 103)에서 시대별 남편호칭어 사용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70년, 80년대에 사용되던 '아빠'가 90년대부터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현정(2016),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의미학 51, 85-110쪽, 한국어의미학회.)

남편호칭어 사용 순위	
서정수(1979)	여보 65.5 > 아빠 22.1 > 자기 10.3 > 영감 1.2 > 임자 0.9
이옥련(1987)	여보 35.5 > 아빠 33.8 > 자기 15.6 > 이름 6.0
홍민표(1999)	자기 27.3% > 여보 27.3 > ○○아빠 22.2 > 이름 +씨 5.1
표준 화법 실태(2010)	
자녀가 없을 때	여보 38.6 > 자기 24.3 > ○○씨 18.8 > 오빠 7.3
자녀가 있을 때	여보 36.3 > ○○아빠 26.1 > 자기 12.3 > ○○아버지 9.6
구현정 외(2014)	
아내가 부르는 말	여보 27.3 > 자기 25.9 > ○○아빠 22.3 > 오빠 7.2 > 이름 5.0
남편이 듣는 말	여보 34.2 > 자기 16.8 > ○○아빠 16.8 > 오빠 9.9 > 이름 5.0

발표문에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 ‘아빠’는 아이가 없는 부부나 비혼자 증가 등 사회 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축소되었다.”고 하였는데, 아이가 없는 부부나 비혼자 증가가 원인이라면 ‘○○아빠’의 사용 또한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여전히 ‘○○아빠’가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빠’ 사용의 축소 원인을 아이가 없는 부부나 비혼자 증가에서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